



SEASON OF  
CREATION

# 2026 창조시기 기념 안내서

## 살아있는 물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  
에제 47,9.12





**SEASON OF  
CREATION**

# 2026 창조시기 기념 안내서

## 살아있는 물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  
예제 47,9.12

### 목차

|                         |    |
|-------------------------|----|
| 들어가는 글                  | 2  |
| 에큐메니컬 교회 지도자들의 초대       | 5  |
| 2026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        | 10 |
| 2026 창조시기 기도            | 18 |
| 에큐메니컬 기도회               | 19 |
| 창조시기와 기념 방법과 상징을 살아가는 길 | 30 |
| 옹호 활동                   | 39 |
| 창조시기에 관하여               | 42 |

# 들어가는 글

환영합니다!

올해 창조시기를 맞이하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특별한 에큐메니컬 연대의 시기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리스도교 가족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를 기념하면서 우리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이 특별한 시기는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때입니다. 더불어 하느님께서 여전히 창조 중이신 이 창조세계 안에서 인간이 모든 피조물이라는 선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협력자로 공동의 부름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때입니다. 온 세상에 나아가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는 창조세계를 돌보라는 공동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며, 하느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행복(well-being)은 지구의 행복과 상호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과,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만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기뻐합니다. 올해 창조시기의 주제는 '살아 있는 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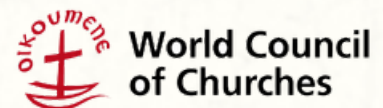
이 안내서가 창조시기에 대해 배우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에큐메니컬 기도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도문과 함께 올해의 주제와 상징을 실천하고 반영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웨비나 Webinar, 기도회, 홍보물 견본, 창조시기 공식 SNS 계정 등의 관련 자료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SeasonOfCreation.org](https://SeasonOfCreation.org)를 방문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시기 동안, 창조세계와 더불어 희망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기를 기념하며 옹호 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시기 에큐메니컬 운영위원회



# 에큐메니컬 교회 지도자들의 초대

그리스도 안에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조시기는 매년 개최되는 그리스도인의 축제로, 창조세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에큐메니컬 가족은 우리 공동의 집, 곧 하느님의 오이코스Oikos를 묵상하고 돌보기 위해 하나로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9월 1일부터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은 여러 그리스도교 교파가 '창조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로, 일부 교파는 '창조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교 교파에서 사랑받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에 끝납니다.

올해 우리는 에제키엘서 47장 9절과 12절을 바탕으로 하여, '살아 있는 물'이라는 주제와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라는 상징 안에서 함께 하나 되고자 합니다.

전 세계 에큐메니컬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과 공동체가 올해 창조시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특별한 초대의 메시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창조시기의 에큐메니컬 기도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가족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특별한 시기로 초대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창조시기[는]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함께하는 교회일치 행사입니다. …… 예언자들의 선포에 함축되어 있는 환경 정의는 더 이상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너무 멀리 있는 목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시급히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 정의는 사회적 경제적 인간적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것은 믿음에서 생겨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반영하고,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교황 담화에서 발췌)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주교,  
**레오 14세 교황**

Photo credits: Vatican Media



“우리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지 않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길 희망할 수 없으며, 희망해서도 안 됩니다. 거듭 말해 왔듯이,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명령이자 공동의 책임입니다.”

동방정교회

**바르톨로메오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총대주교**

Photo credits: Nicholas Papachristou



“창조시기를 맞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육화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은 인류만이 아니라 온 창조세계를 향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자 교회 사명의 필수적 표시입니다. 이것은 창조세계의 본모습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지구의 생명을 보존하며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 지구와 그 안에 머무는 모든 것들을 위한 정의와 치유, 희망을 추구하며 주님의 ‘화해 사업’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 영국 성공회,

**사라 멀랄리 캔터베리 대주교**

Photo credits: Lambeth Palace Comms team



모든 강을 정화하고, 마지막으로 바다까지 정화합시다. 우리 도시의 모든 시냇물과 강이 다시 흐르게 만드는 운동을 시작합시다. 강이 다시 도시의 공간으로 돌아와 자리잡게 하고, 강 주변에 나무를 심읍시다. 그 강이 우리에게 선사할 평화와 치유, 그리고 고요함을 누립시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강을 ‘살아 있는 물’로 창조하셨습니다.

- 세계감리교협의회 총무,

**레이날도 페레이라 레앙 네투 (레오) 목사**



“에제키엘의 ‘살아 있는 물’ 환시는 황폐한 곳으로 흘러간 하느님의 생명을 주시는 은총과 성사적 현존이, 창조세계와 인간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심각한 생태 위기에 직면한 오늘의 세계에서, 이 강물은 땅과 물, 그리고 가장 취약한 이들을 착취하는 구조에서 회개하라는 부르심이 됩니다.

창조세계는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진 상호의존적 생명의 친교 공동체입니다.

생태 위기 최전선에 있는 여성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의 증언은 환시에 깊이를 더해 줍니다. 이는 환경 파괴가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장 가혹한 피해를 남긴다는 상황과 맞물려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과 건강, 생존을 위하여 많은 이가 매일매일 지고 가는 부당한 짐을 인지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물과 생명을 지키는 데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지혜와 주체성, 그리고 회복력을 높이 기립니다. 루터교세계연맹은 창조세계를 위한 정의가,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이들을 위한 정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창조시기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물이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와 정의와 희망의 자리로 구체적이면서도 영원하게 새로이 빛으시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루터교세계연맹 총무,  
**앤 버가르트 목사**

Photo credits: Albin Hillert



“우리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후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취약한 공동체를 지원하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 행동하는 교회연맹(ACT Alliance) 사무총장,  
**루델마르 부에노 데 파리아**

Photo credits: ACT Alliance



“올해 ‘창조시기’의 주제로 선택된 에제키엘서의 ‘살아 있는 물’ 환시는 온 창조세계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파괴된 생태계의 상징과도 같은 ‘사해’조차 이 살아 있는 물을 통해 치유를 얻습니다.

이 예언자적 희망은 2026년 기후와 생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후 정의 행동을 위한 에큐메니컬 10년’의 핵심 목표를 깊이 반영합니다. 그 목표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생태적 회개와 신앙에 뿌리를 둔 실천을 기꺼이 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의와 화해, 일치를 향한 우리 공동 순례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  
제리 필레이 목사(교수)

Photo credits: Albin Hillert



“성금요일 찬미가는 “땅을 물 위에 매다신 분께서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셨도다”(동방정교회의 성금요일 아침기도 참조)라고 선포하며, 창조 때 물이 다른 자연 요소보다 근원적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더 나아가, 육화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 사건을 우리는 구원 교리의 기초로 삼습니다.

현대 과학은 물, 다시 말해 물의 중요성과 물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알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람들이 물을 놀라울 만큼 무분별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필수 요소인 물은 지구 온난화로 언제든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전되고, 보호받으며,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과 연관된 주제는 학교 교육 과정과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물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시민을 키워낼 것입니다.”

- 중동교회협의회(MECC) 사무총장,  
미셸 압스 교수

Photo credits: MECC



“창조시기는 세계 교회를 향한 살아 있는 초대장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을 담아 정교하게 빚어내신 이 선물, 곧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이 창조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초대입니다.

복음주의자인 우리는 “세상은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돌봄에 맡겨졌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성실한 제자직은 창조세계의 풍요로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열매를 누리는 것, 곧 지혜와 겸손과 다른 그리스도교적 덕목을 지니고 창조세계와 관계 맺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시기는 복음의 완전한 실재에 각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온 창조세계의 회복도 함께 끌어안는 일입니다.”

- 세계복음연맹(WEA) 사무총장,  
**보트루스 만수르 목사**

Photo credits: WEA



“살아 있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온 땅을 새롭게 하는 예제 키엘의 예언자적 환시 속에서, 우리는 치유와 정의, 그리고 모든 창조세계의 회복을 향한 하느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환시는 생태계 파괴와 착취적인 경제 구조, 그리고 특히 지구 남반구의 취약 공동체들이 겪는 깊은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의 현실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죽음을 초래하는 시스템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 생명의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 대지를 새롭게 하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변화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일깨웁니다.

이는 정의와 풍요로운 나눔, 그리고 생태적 온전함에 바탕을 둔 생명이 넘쳐흐르는 공동체”를 돌보시는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선교적 부르심입니다.

이번 창조시기에 교회는 생명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에 저항하고, 창조세계라는 거룩한 선물을 보호하며, 모든 이가 존엄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꾸어 가시는 하느님의 생명 전하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 세계선교협의회(CWM, 개혁 교회) 사무총장,  
**금주섭 목사**

Photo credits: Dileep Kumar Kandula

# 2026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  
 예제 47,9,12

## 살아 있는 물 2026 창조시기

### 1. 주제와 상징의 성경 본문 (『성경』-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 이 강가 이쪽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예제 47,9,12.).

올해 주제인 “살아 있는 물”은 예제키엘서 47장 9절과 12절에서 희망과 생태적 치유라는 강력한 성경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유배와 상실의 아픔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살아 있는 물의 이미지는 하느님의 치유를 드러내고, 그 치유는 땅과 물, 생물 다양성,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새롭게 일깨웁니다.

이 상징은 하느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에 불과하지만, 갈수록 깊어지면서 죽어 있는 곳에 생명을 가져다주고 훼손되거나 메마른 생태계를 회복시켜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물로 들어가 하느님 생명의 강의 일부가 되어, 창조세계를 치유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 2. 예제키엘서 47장 9절과 12절의 역사적 배경

이 본문은 정치적, 사회적, 신학적,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빌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바빌론으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강 기슭에 앉아 울며 탄식합니다 (시편 137[136]편 참조).

에제키엘서는 기원전 6세기 초, 예루살렘 함락 후 바빌론 유배 시기가 배경입니다(에제 1,1). 사제였던 에제키엘은 유배된 이들 중 하나였으며, 하느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에제 3장; 33,1-9).

에제키엘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 중심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를 바빌론 군대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느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에제 7-10,21장). 그러나 에제키엘의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제키엘은 하느님의 통치가 성전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서는 유배된 이들과 함께 계시고, 회복을 약속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의미 있는 점은 성전이 에제키엘의 회복에 대한 환시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에제 40-47장). 더럽혀지고 파괴되었던 성전이 이제 모든 창조세계에 대한 축복과 치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변모합니다. 에제키엘서 47장에 묘사된 놀라운 강은 이 회복된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당신 백성 가운데 머무르실 때, 온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 3. 에제키엘서 47장 1-12절의 신학적 개괄

에제키엘은 40장부터 46장까지 광야에 세워질 새 성전을 묘사해 왔습니다. 이 새 성전은 정말 웅장하지만 텅 비어 생명이 없습니다. 47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예언자는 환시 중에 미래의 완벽한 성전 입구로 인도됩니다. 성전의 문지방 아래서 물이 솟아나는데,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지만 점점 깊어져 곧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됩니다. 이 강은 한때 메말랐던 땅을 가로지르며 사막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고, 물고기와 온갖 나무를 되살리며, 심지어 소금으로 가득한 사해의 물까지 치유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šûb(“돌아오다”)는 공간적인 전환점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물고기들이 요르단강을 따라 헤엄쳐가다가 생명 없는 사해의 물로 들어가기 전에 되돌아설 수 있는 어떤 지점에 비길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또한 회심이라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환시의 이미지는 생생하고 역동적이지만,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환시의 의미가 종종 순전히 은유적으로만 읽는 해석에 가려집니다.

많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에제키엘서 47장은 주로 미래의 종말론적 약속, 곧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온전히 함께 머무르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 시대의 묘사로 읽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환시는 지금 현재의 치유를 말하면서 동시에 더 넓은 미래의 우주적 치유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은 인간 구원을 넘어서 창조세계 그 자체의 치유를 포함하는 회복을 나타냅니다. “치유를 위한” 잎을 가진 나무들은 육적 양식이 될 뿐 아니라 인간과 창조세계를 함께 아우르는 전체적 번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에제키엘서 47장 1-12절은 환경적 메시지, 곧 지구적 치유, 회복, 생명의 변화를 뚜렷하게 전합니다. 이 본문은 인간과 자연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며,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데서 드러나는 희망의 지평을 제시합니다.

### 3.1. 살아 있는 물: 생명으로서의 물

에제키엘의 환시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물을 생명을 주는 힘, 곧 하느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회복, 정의, 희망에 대한 거룩한 도구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에제키엘 시대에 물은 하느님의 현존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위대한 문명들은 나일 강처럼 거대한 강들에 의존했고, 에덴동산을 적시던 강들(창세 2,10 참조) 중에서 두 개의 강,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에도 기대고 있었습니다. 대양의 바닷물 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환시는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로 시작됩니다. 이 물줄기는 기도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방울이 합쳐진 것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막을 수 없는 강으로 커지는 모습, 이것이 첫 번째 경이로움입니다. 그 강은 성전에서 흘러나와, 하느님 백성의 경배와 기도로 불어나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이로움은 그보다 훨씬 큼니다. 이 강은 단지 생명을 떠받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계 전체를 되살립니다. 예언자는 “강 이쪽 언덕에도 저쪽 언덕에도 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보았고. ... 이 물이 동쪽 지방으로 흘러 내려가 아라바로 내려가고, 바다, 곧 고인 물의 바다에 이르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는”(에제 47,7-8 참조) 것을 보았습니다. 강물이 어떻게 ‘고인 물의 바다’까지 흘러들어가는지 묘사할 때, 예언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생명이 없는 장소 중 하나인 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은 너무도 강력해서 그 소금물이 맑은 물로 바뀌고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 3.2. 성전의 희생 제사에서 하느님의 생명수로

에제키엘의 환시는 성전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립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의적 전통에서 성소는 희생 제사를 바치는 자리였고, 그곳에서 하느님과의 화해를 위해 생명을 품고 있는 피를 흘렸습니다. 피는 심판과 자비를 함께 보여 주며, 백성에게 생명이 값지면서도 연약한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에제키엘서 47장에서 주된 이미지는 더 이상 제단을 향해 흐르는 피가 아닙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거룩함은 무엇보다 생명을 낳는 풍성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생명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생명을 피워냅니다.

피에서 물로 넘어가는 이 전환은 신학적으로도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가 깨어진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라면, 물은 회복과 번영의 방식입니다. 에제키엘은 희생 제사 신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하느님과의 화해는 단지 예배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워진 땅, 치유된 생태계,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윤리적 의미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생명을 주는 물로 드러난다면, 참된 예배는 결코 전례 의식을 준수하는 데만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충실함은 생명을 보존하는 모든 조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헤아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회복된 관계의 직접적 결과는 창조 세계의 돌봄으로 드러납니다.

회복과 치유에 대한 희망은 기도와 예배와 희생 제사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조그만 희망의 물방울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의 회개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 4. 에제키엘서 47장 9절과 12절의 생태학적 해석

이 강물이 바닷물을 맑게 되살릴 것이라는 에제키엘의 주장(에제 47,8-9)은 읽는 이를 놀라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결정적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언급합니다. 예언자는 자연의 순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반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해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물고기도 없고 식물도 없으며 물이 흘러나올 곳도 없는, 다시 말해 생명이 들어가면 죽는 장소였습니다. 소금물은 불모지와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에제키엘은 맑은 물이 바닷물을 치유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느님께서 혼돈의 물에서 질서와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창세기의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에제키엘은 그 강이 사해를 지나쳐 간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강이 사해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신학적입니다. 곧 하느님의 생명이 가장 죽어 있고 가장 희망이 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라파’(רָפָא)는 ‘치유하다, 회복시키다, 온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인간의 관리를 통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와 상호작용하시는 하느님의 움직임을 통해 새로워집니다. 바닷물도 인간의 관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치유로 맑은 물이 됩니다. 하느님은 죽음의 자리를 지나쳐 가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 나무들은 결핍과 부족함의 시기를 넘어선 생명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해의 물이 맑아진 것처럼,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 이 장면도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이 발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세계가 회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본디 한 계절만 열매를 맺으며, 가뭄, 해충, 전쟁, 기근에 취약합니다. 에제키엘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회복하신 질서 안에서 생명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결실은 강수량의 형태나 토양의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의 끊임없는 현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에덴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섭니다. 에덴에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창세 2,9) 온갖 나무들이 있었지만, 이 미래의 나무들은 한 해에 열두 번 열매를 수확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nostalgia)을 드러내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한층 더 풍성해진 회복입니다. 말하자면, 에덴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에제키엘서를 반향하여, 그 강과 생명나무를 우주적, 생태적, 심지어 정치적 치유에 대한 궁극적 지평으로 제시합니다(묵시 22,2 참조).

주: 이 단락은 에제키엘서의 강에 대한 환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바다와 대양의 가치를 낮추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바다와 대양 또한 소금물로 이루어졌으나 살아 있는 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실제로 바다는 지구 생물다양성의 많은 부분을 품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창세 1,21 참조). 더 나아가 대양은 기후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 5. 위기와 희망 사이의 물

### 5.1. 오늘날의 물 위기

에제키엘의 환시는 우리가 겪고 물 위기 현실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국제 연합(UN) 뉴스에 따르면, 가정에 기본적 위생 시설이 부족한 인구가 17억 명에 달합니다. 또한 21억 명은 여전히 안전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데, 이는 세계 인구 4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지하수의 취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나라가 현재 이른바 ‘물 파산’(UNU)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자연 수자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고갈되었음을 뜻합니다.

식수 접근권은 모두의 인권이지만, 복합적 물 위기는 정치, 경제 구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취약 공동체와 미래 세대, 그리고 다른 피조물의 생명에 더 크게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많은 과제 가운데 몇 가지를 안내합니다.

- 가난한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 가격
- 수인성 질병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
- 화학물질과 기타 오염물질의 산업 방류가 강에 미치는 피해
- 인공 지능 활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생산 시 발생하는 물 소비 급증
- 기업과 정부의 부실 관리와 부패
- 가뭄, 홍수, 폭풍, 사막화가 식량 안보에 미치는 피해
- 해수면 상승이나 대수층(지하수 함유층)의 과잉 개발로 인한 토양 염류화
- 부족한 물 공급을 둘러싼 경쟁으로 발생하는 폭력

이런 다수의 문제가 사람들을 이주하게 만들고, 난민으로 내몰며, 고향과 문화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타격은 참혹합니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우리는 수중 야생 생물이 재앙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담수 개체군은 무려 85%, 해양 개체군은 56%나 감소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위기는 세 가지 관계가 깨어졌음을 드러냅니다. 곧 인류와 하느님 사이의 관계, 인류 가족 내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다른 생명체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수질 오염이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5.2. 신앙과 실천이 불러오는 희망

에제키엘의 환시는 궁극적으로 희망의 환시입니다. 창조주의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는 창조세계를 ‘상호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참조: 창세 9,8-17; 호세 2,18; 시편 24[23],1). 이 관계는 지배가 아니라, 거룩한 동반자이자 상호 돌봄의 관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과도하거나 포악한 인간 중심주의를 거부하시며, 이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 책임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찬미받으소서」, 67.68.116항).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언급했던 불의에 맞서고, 물을 소모성 자원으로 취급하는 세계관을 거부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교회협의회(WCC) 에큐메니컬 물 네트워크(EWN)는 물이 하느님의 선물이며 식수 확보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접근을 바탕으로, 지난 20년 동안 모든 이를 위한 물의 보존과 책임 있는 관리, 공정한 분배를 촉진해 왔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신앙에 힘입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을 회복시키고, 수원지를 오염과 자원 채굴 산업으로부터 보호하며, 메마른 땅이 다시 푸르게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또 우물을 파서 본당과 마을, 보건 시설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6.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 회개와 치유

성경은 반복해서 물을 하느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연결합니다. 나아만이 요르단강에 몸을 담근 일(2열왕 5장 참조)과 못가에서 기다리던 병자의 치유(요한 5장 참조)가 그 내용입니다. 에제키엘 자신도 점점 더 깊이 강물에 잠기게 되는데, 이는 세례의 이미지를 반영하며 새로 남을 상징합니다.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세례를 상기시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침수 세례를 위해 흔히 대형 세례대를 사용하였고, 세례대 안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들어갔습니다. 이는 에제키엘의 환시에서 물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을 반영합니다(에제 47,3-6).

에제키엘서의 앞부분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에제 36,25-27). 우리는 치유를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던 물과 피를 떠올리게 됩니다(요한 19,34).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곧 하느님의 치유를 받아들이면, “생수의 강들”(요한 7,38)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그리스어 원문은 뱃속에서[bellies]!) 흘러나오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새로워지면서, 그 살아 있는 물은 다른 이들과 창조세계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에게서도 흘러나오게 됩니다.

## 2026 창조시기 상징



2026년의 상징인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는 회복과 탄생의 상징입니다. 곧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돌보심과 치유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그 물속으로 발을 내디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깊이 잠기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 물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위한 생명의 샘이 되도록 초대받으며,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요한 4,14)입니다.

이 상징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잠겨 보도록 초대합니다. 곧 강, 샘, 분수, 세례대, 호수와 바다의 물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일하자는 초대입니다.

이 상징은 또한 우리에게 형제자매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창조세계의 ‘눈물’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도록 권합니다(로마 8,22-23 참조). 실제로 창조시기는 취약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 무엇보다 환경 파괴로 고통받는 이들과 형제적 친밀함과 연대를 나누기에 적절한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회복력, 그들의 헌신에서 배울 수 있으며, 함께 희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징을 보실 수 있습니다.

## 7. 행동으로 부르심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1요한 4,19 참조). 하느님의 아들딸로서 끊임없는 마음과 정신의 회심을 통해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평생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수 속으로 들어가기 선택한다면, 우리는 모든 인류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도 더욱 정의롭고 생명을 주는 세상을 가꾸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 에제키엘의 예언은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에제 47,12) 나무들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양가 있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생물다양성의 결실이 형평성 있게 분배되도록 우리의 정책과 실천을 만들고 반영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소유지에서 그리스도교 가치를 반영하는 녹지 조성 사업을 장려할 수 있고, 신자들에게 일부 먹거리를 재배하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수질 오염:** 우리는 유해 오염을 삼가고 규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산업과 농업 부문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수원지를 보호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물과 위생 시설:**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여전히 안전한 식수와 위생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학교, 의료 시설, 교회와 본당을 포함한 경배 장소가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환경 교육:** 부모, 교리교사, 성직자, 신앙 공동체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아울러, 창조세계에 대한 통합적 돌봄을 키워나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관계와 윤리, 그리고 영적 양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조세계에서 영적 영감 얻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관상함으로써(욥 7-12장), 우리는 지배에서 겸손으로, 착취에서 돌봄으로, 단기적 이익에서 장기적 번영으로 나아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영적인 동시에 실천적이며, 가치관과 경제 체제, 그리고 교육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생각하도록 요구합니다.

**나무 심기:** 이제 많은 교회가 세례, 견진, 장례 같은 신앙의 중요한 순간을 나무 심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가 우리 영적 삶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잡도록 합시다. 나무는 탄소배출로 인한 오염을 흡수하고, 토양 침식을 막으며, 홍수를 줄이고, 식량과 치료제를 제공하고, 도시 환경의 기온을 낮춰 줍니다. 나무는 참으로 만민에게 치유를 가져다줍니다.

**우리의 바다 돌보기:** 우리의 ‘푸른 허파’인 바다는 쓰레기 배출, 남획, 오염, 심해 채굴로 인해 점점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파도 아래 있는 생명과 생물다양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에서도 멀어지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이 우리 지역사회가 이러한 해양 세계를 보고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정부 지도자들이 해양 생물군계와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세대를 거듭하여 이 푸른 허파가 숨 쉬도록 지켜주는 청지기직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복원과 보호:** 우리는 교회와 가정, 지역사회의 터전을 회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실천 운동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은 ‘기후 정의 10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Laudato Si’ Action Platform)’과 ‘성공회 숲(Anglican Communion Forest)’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있으며, 프랑스의 ‘에글리즈 베르트(Eglise Verte/녹색교회)’ 또는 아로샤 인터내셔널(A Rocha International)이 영국에서 주관하는 ‘에코 교회(Eco Church)’ 같은 국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 내고 하느님 사랑의 물결 속으로 발을 내디딭시다. 이제 세상을 위한 ‘변화의 강’에 합류하여, 창조세계의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 그리고 지구의 축복을 바라봅시다.

# 2026 창조시기 기도

## 살아 있는 물

거룩하신 하느님,  
한 처음에 하느님의 영은 물 위를 감돌고 있었고,  
이제 저희는 하느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피조물의 일원으로  
하느님 은총에 목말라하며 모였나이다.

우리 공동의 집의 핏줄이며  
향백나무와 고래, 초원과 도시를 살리는 물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지역마다 흐르는 물로  
우리 터전과 그 안의 피조물이 풍요로워지니 감사하나이다.  
흠뻑 물을 댄 하느님의 동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모든 물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되니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이 선물을 한낱 상품처럼 다루어 왔음을 고백하나이다.  
쓰레기로 바다를 숨 막히게 하고  
뜨거워진 바닷물이 심판하듯 차올라도 지켜보기만 하였나이다.  
이제 저희는 가뭄으로 갈라진 땅과  
기후 난민들의 쓰라린 눈물에 탄식하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어  
참회의 물결이 흐르게 하소서.

모든 생명의 주님이신 하느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으니,  
물을 돌보는 소명을 저희에게 일깨우시어  
강 유역을 보호하고 물의 권리를 수호하며  
목마른 이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샘이 되어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샘물이 힘차게 솟아오르게 하소서.

바위에서 물을 내신 아버지 하느님,  
광야를 헤매는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살아 있는 물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회복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은총의 물결 위로 저희를 싣고 이끄시어  
공정이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아멘.

# 에큐메니컬 기도회

## 들어가며

창조시기 시작 기념에 이 기도회를 활용하도록 권합니다. 창조시기는 9월 1일에 시작되며, 일부 그리스도교 교파는 이날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일부는 ‘창조 축일’로 기념합니다. 이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인 10월 4일에 끝납니다. 이 시기 동안 개최하는 행사나 전례에서도 이 기도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할 때, 참석자들에게 각자 집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작은 병에 물을 담아 오도록 안내해 보십시오. ‘물에 대한 감사’ 순서를 진행하는 동안, 성수대 또는 ‘물 축복’을 위해 마련해 둔 큰 그릇에 각자 가져온 물을 조금씩 부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릇에 모은 물을 축복합니다. 일부 교파에서는 이 물을 회중에게 뿌리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의 세례를 되새기고 물이라는 선물을 돌보아야 하는 우리의 공동 소명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남은 물을 (유리나 재생가능 재료로 만든) 병에 담아 집에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쇄신의 표지이며, 물을 하느님의 거룩한 선물로 보호하고 소중히 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창조시기 기념 방법과 상징을 살아가는 길’ 항목의 ‘파견: 살아 있는 물을 통한 강복’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창조세계의 눈물을 보여 주는 시각적 이미지나 사례를 준비하여, 탄식의 시간을 보다 창의적으로 마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기도회 순서에서 주송자 또는 인도자가 읽는 부분은 일반 글씨로, 회중이 응답하는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성경』(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인사 및 도입부

오늘 우리는 에큐메니컬 창조시기 행사의 일환으로 이 기도회를 지냅니다. 창조시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념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살아있는 물’이며, 에제키엘서 47장 9절과 12절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 마음을 모으는 기도

- + 한 처음에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었고,  
하느님께서는 보시니 좋다 하셨나이다.
- ◎ 오소서 성령님, 그 물을 깨끗이 하소서.
- + 예언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보았으니,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살아났나이다.
- ◎ 오소서 성령님,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나이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 ◎ 오소서 성령님, 당신 백성을 치유하소서.

## 물에 대한 감사

-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는 모든 피조물에 깃든 주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정화하는  
물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있는 물이시니,  
만물을 깨끗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며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야생지와 숲과 산과 해안과 바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에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물에 감사하나이다.  
또한 비옥한 대지, 나무와 초원, 풍성한 수확,  
이 모든 것의 목마름을 채워 주는  
살아 있는 물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출처: 성공회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 기도서)

물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세상의 모든 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나이다.  
특히 우리 공동의 집인 이 터전에서  
물을 통하여 저희를 살게 해 주시니 깊이 감사드리나이다.

여기서 다른 교회나 타 지역에서 온 이들이 그 고장의 물을 (플라스틱이 아닌) 병에 담아와 세례  
대나 큰 그릇에 부으면서, 그 지역의 물 이름, 곧 강, 바다, 호수의 이름을 불러 줄 수 있다.

하느님, 감사하나이다.  
하느님께서서는 한 처음에 당신의 모습으로 저희를 창조하시어,  
흠뻑 물을 댄 동산에 두셨나이다.  
광야에서는 목마른 이들에게 물이 솟는 샘을 약속하시고,  
당신 백성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내셨나이다.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  
 착한 목자를 보내시어 잔잔한 물가로 이끄셨나이다.  
 십자가 위 예수님의 꿰찔린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로 저희를 씻어 주시고,  
 오늘 다시 살아 있는 물로 저희를 흠뻑 적셔 주시나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용서와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를 씻어 주시나이다.  
 목마른 모든 이에게 물을 먹이시며,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나이다.

(출처: 모든 피조물아 찬양하여라,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그러나 저희는 이 귀한 선물을 소홀히 여기고,  
 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음을 탄식하나이다.

## 탄식

탄식은 슬픔이나 비탄을 절실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슬픔과 애도, 후회를 소리 내어 표현하는 애가나 찬가 또는 시입니다. 혹은 깊은 뉘우침을 뜻하기도 합니다. 죄는 흔히 복수형으로 고백하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영혼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이 예식에서 회중의 응답은 '아삼누(ashamnu)'이며, 히브리어로 '저희 모두가 죄를 지었나이다.'라는 뜻입니다.

+ 하느님,  
 저희는 하느님의 물을 바라보며 깊이 슬퍼하나이다.  
 강은 오염되고,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숨이 막히며,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해양 생물이 사라져가나이다.  
 산호초는 빛이 바래고  
 물고기들의 서식지가 무너져가나이다.  
 ◎ 아삼누(저희 모두가 죄를 지었나이다.).

+ 바닷물은 솟아올라 해안을 삼키고,  
 폭풍은 더욱 거세어지며  
 홍수는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가뭄으로 대지가 갈라지며 아이들은 목말라하나이다.  
 ◎ 아삼누(저희 모두가 죄를 지었나이다.).

각자의 지역에서 발생한 물의 피해에 대한 탄식을 추가할 수 있다.

+ 저희는 하느님의 물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는 절제 없이 물을 소비하였고,  
 주님께서 보시니 좋다고 하신 것을 오염시켰으며,  
 생명의 강이 주님의 어좌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잊었나이다.  
 ◎ 하느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탄식의 찬가를 부르는 동안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제안: 오염된 물을 찍은 사진이나 아이들이 그린 그림 봉헌하기, 전례 무용, 침묵 시위 등) 또는 창조세계와 상처 입은 인류가 흘리는 쓴 눈물을 상징하는 그릇을 놓아둘 수도 있다.

## 용서

+ 하느님의 자비는 살아 있는 물처럼 흐르나이다.  
 거친 물결에게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우리 삶의 모든 메마른 곳까지 정의가 흐르게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이 은총으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어  
 온 창조세계의 치유라는 기쁜 소식을 따르고 선포하게 하소서.

◎ 아멘.

## 화답송, 시편 65[64], 6-14 (『전례 시편』-한국천주교주교회의-)

- 6 저희 구원의 하느님  
 당신은 놀라운 정의로 응답하시나이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끝과  
 머나먼 바다의 희망이시옵니다.
- 7 당신은 권능을 허리에 두르시어  
 당신 힘으로 산과 산을 세우셨나이다.
- 8 바다의 울부짖음을,  
 그 파도의 울부짖음을,  
 민족들의 아우성을 가라앉히셨나이다.
- 9 땅끝 멀리 사는 이들도  
 당신 표징에 놀라워하리이다.  
 동녘에서 서녘까지 환호하리이다.
- 10 당신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 11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12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 13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14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말씀 봉독

(『성경』-한국천주교주교회의-)

### 제1독서: 에제 47,9-12 (창조시기 주제 본문)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 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 이 강가 이쪽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 살아 있는 물인 말씀이시여  
 ◎ 만물을 살게 하소서.

### 제2독서: 묵시 22,1-7 (또는 원하는 본문)

그 천사는 또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양의 어좌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저쪽에는 열두 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성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양의 어좌가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주님, 곧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 주시는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당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보라, 내가 곧 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 살아 있는 물인 말씀이시여  
 ◎ 만물을 살게 하소서.

복음 봉독 전에 창조를 주제로 하는 성가/찬미가 또는 알렐루야를 부른다.

### 제3독서: 요한 7,37-39 (또는 원하는 본문)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 살아 있는 물인 말씀이시여  
 ◎ 만물을 살게 하소서.

## 강론 또는 묵상 나눔

(에제키엘서 본문, 그리고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에 중점을 두고 묵상하기)

묵상 나눔 후에 창조세계를 주제로 하는 찬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 신앙 고백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만물을 품으시고, 만물을 기뻐 바라보시며  
 창조세계의 모든 곳에 현존하시고,  
 생명수로 이 지구에 세례를 베푸시는  
 모든 생명의 샘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나이다.  
 고통받는 이와 가난한 이,  
 굶주리는 이와 기후 난민의 모습으로 계시며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이 세상과 함께 고통받으시고,  
 생명의 씨앗으로서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에  
 화해와 새로움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을 믿나이다.  
 하느님과 함께 움직이시며  
 오늘 저희 가운데에서  
 저희와 함께 활동하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믿으며  
 언젠가 하느님께서  
 죽음과 모든 멸망의 세력을 물리치시리라는 희망을 믿나이다.

(자료 출처: 남인도 루터교 신학교)

## 봉헌 기도

생태 회복 또는 기후 정의에 기여하는 사업과 사목 가운데서 여러분의 지역 상황에서 의미 있는 분야를 선택해 헌금, 상징물, 지향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물 봉헌 동안 창조세계를 주제로 한 성가를 부를 수 있다.

+ 영으로 심연을 감돌고 계시던 하느님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  
 저희 위의 물과 저희 안의 물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저희가 지구의 모든 물을  
 정성껏 돌보아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어,  
 그 물이 저희와 후손들의 생명을 풍성히 살리게 하소서.

저희가 이곳에서 바치는 첫 열매를 기꺼이 받아 주소서.  
 이 예물을 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어  
 저희를 돌보고 당신의 창조세계를 보살피게 하소서.  
 저희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료 출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여라, 아우크스부르크 포트리스, 2026)

## 보편지향기도

+ 살아 있는 물이신 하느님,  
 오늘 저희는 물이 착취되고 오염되며 독점되는 상처 입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잠시 침묵한다.)

+ 플라스틱과 독성 물질과 기름 유출로 시냇물과 습지가 검게 물든 곳을 위하여,  
 또 고기잡이하는 곳의 물이 오염되고, 아이들이 더럽혀진 시냇물을 마셔야 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한 뒤, 지역 하천과 습지, 또는 오염된 장소들을 언급한다)

+ 오염된 것을 치유해 주소서. 이익을 위하여 진실이 침묵 당한 곳에 정의를 세워 주소서.

◎ 주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무는 양식을 내며, 잎사귀는 치유되게 하소서.

+ 약한 이들의 동의 없이 댐으로 막아버린 모든 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절마다 범람하던 물이 사라져 땅이 메말라 버린 농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멀리 있는 도시와 데이터센터에 자신들의 거룩한 물을 강제로 내어준  
 토착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업의 탐욕으로 생업을 빼앗기고 전 세계의 소비를 위하여 건강마저 희생당한  
 고통받는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한 뒤, 지역의 강과 농경지,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른다.)

+ 부당하게 억눌린 것을 풀어 주소서.  
 강들이 다시 존엄과 생명을 지니고 흐르게 하소서.

◎ 주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무는 양식을 내며, 잎사귀는 치유되게 하소서.

+ 플라스틱과 화학 폐기물에 짓눌린 바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뜨거워진 바닷물로 하얗게 바래가는 산호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일론과 페그물의 미로를 헤쳐나가는 큰 고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합성폐기물의 보이지 않는 먼지와 뒤섞여버린 아주 작은 생명들,  
 플랑크톤과 크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폐수, 비료와 염료와 중금속을 실어 나르는 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한 뒤, 가장 가까운 바다와 전 세계 바다의 이름을 부른다.)

+ 저희의 죄책감을 회복의 은총으로, 무관심을 행동으로 바꾸어 주소서.  
 저희가 정의롭게 살며 모든 해안과 시냇가에 치유를 가져오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 주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무는 양식을 내며, 잎사귀는 치유되게 하소서.

- + 높아지는 해수면에 공동체와 선조들이 물려준 땅을 빼앗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바다의 소금물이 맑은 우물까지 스며들고 있는 곳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무덤들과 함께 기억과 소속감까지 쓸려간 곳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기후 변화에 가장 책임이 적으면서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하며 기도한다.)

- + 그들의 존엄을 지켜 주시고, 전 세계가 정의를 위해 굳건히 결의하게 하소서.
- ◎ 주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무는 양식을 내며, 잎사귀는 치유되게 하소서.
- + 물이 고갈되거나 식수가 안전하지 않은 임시 정착지와 시골 마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물을 구하러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아이들과 물 부족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오염된 물로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하며 기도한다.)

- + 삶이 물과 가깝게 얹혀있는 이들이자  
물과 더불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들인  
해안 주민들과 어민들, 해양 생물학자들과 수자원 기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또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 행동에 나서고,  
저마다 지닌 힘이나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하여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합니다.
- 정부와 기업과 공동체를 일깨우시어  
물을 정의롭게 지키고 나누게 하소서.
- ◎ 주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무는 양식을 내며, 잎사귀는 치유되게 하소서.

(자료 출처: 남아프리카 감리교회)

- + 하느님, 저희 마음을 돌이켜 주소서.
- 물을 한낱 상품으로 여기던 자리에  
거룩한 선물이라는 깨달음을 주소서.
-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물을 소비한 자리에  
소박함을 가르치소서.
- 경외심 없이 물을 사용한 자리에  
물을 모든 세대에 맡겨진 선물로 지키고  
만물을 위한 생명의 근원인 물을 공경하게 하소서.
- 침묵하며 불의를 묵인한 자리에  
용기 있는 강의 보호자, 바다의 수호자,  
물에 대한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어,  
정의와 자비가 생명의 강처럼 흐르게 하소서.
- ◎ 주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무는 양식을 내며, 잎사귀는 치유되게 하소서.

## 다른 기도 혹은 추가 기도

+ 온 창조세계를 태중에 품으시고,  
 저희가 태어날 때 이 땅으로 힘차게 내보내신 주님,

주님께서는 밀물과 썰물의 영이시니,  
 오르내리는 리듬을 저희에게 일깨워 주시어,  
 그 리듬을 저희 존재 깊은 곳에서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푸르름의 영이시니  
 저희 삶에 촉촉함과 생기를 주시어,  
 주님의 생명이 저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깊이 맛보게 하소서.

물의 축복을 저희 위에 내려 주시고,  
 저희가 생명의 큰 강물에 실려 가게 하소서.  
 저희 안에 감추어진 샘을 발견하여,  
 그 샘이 힘차게 솟아오르게 하소서.  
 저희가 거룩한 해안에 이르러 새로워지게 하소서.

(빙엔의 성녀 힐데가르드의 영성에 바탕을 둔 삼위일체 월스트리트 교회 사순 시기 묵상)

◎ 아멘.

## 주님의 기도

+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각자의 언어로 함께 기도합니다.

## 물의 축복

전례 집전자들과, 경우에 따라 회중도 함께 물을 부어둔 세례대로 나아간다. 축복 기도문은 예식을 거행하는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 기도회 집전자들이 나누어 낭독할 수 있다.

거룩한 삼위일체,  
 본질과 선하심과 신성에서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만물을 굽어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존재의 창조주요  
 세상의 모든 존재를 비추시는 빛이신 하느님.

창조세계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만물의 창조하고 지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받으시던 날,  
 성령의 은총이 비둘기 형상으로 물 위에 내려왔나이다.

태양은 빛나고, 세상은 주님의 빛으로 밝혀지나이다.  
 달은 그 빛살로 세상을 비추고  
 빛나는 별들은 그 광채로 우주를 꾸미나이다.  
 하늘의 구름은 정의의 소나기로 땅을 풍요롭게 하고  
 요르단 강의 물은 주님의 현존으로 치유의 물로 변하니  
 온 창조세계는 신비한 강물로 적셔지나이다.  
 하느님 지혜의 빛으로 저희는 비추어졌고,  
 온 창조세계는 높은 곳에서 빛을 받나이다.  
 땅과 바다는 세상의 기쁨을 나누며,  
 세상은 환희로 충만하나이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위대하시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랍나이다.

◎ 영광받으소서, 주님, 영광받으소서.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무에서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창조세계를 지키고 보존하시나이다.  
 주님께서서는 네 가지 원소로 창조세계를 만드셨고,  
 한 해를 사계절로 두르셨나이다.  
 해와 달은 주님을 찬양하고,  
 별들은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바다의 물결은 주님 앞에 흐르고  
 샘물들은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서는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땅을 물 위에 세우셨으며  
 모래로 바다에 울타리를 만드셨나이다.

피조물과 연대하며 모습을 드러내신 주님  
 온 창조세계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하느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나이다.

(물 위에 십자가를 세 번 굽는다.)

그러므로, 온 창조세계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시여,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현존하시어 이 물을 거룩하게 하소서.

◎ 아멘.

이 물에 구원의 은총과 요르단 강의 축복을 내리시고  
 생명의 샘이 되게 하소서.  
 이 물을 받는 모든 이에게  
 영육의 치유와 물을 지키는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온 창조세계의 치유를 위한 살아 있는 물이 되게 하소서.

◎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주님을  
 이제와 항상 영원히 찬미하나이다.

◎ 아멘.

(출처: 동방정교회 전례.예루살렘 총대주교 소프로니우스 저 「주님 공현 대축일 성수 대축복식」)

물과 관련된 찬가나 성가를 부른다. 집전자는 그 지역의 나뭇가지나 성수채를 사용하여,  
 회중에게 세례대의 물을 뿌릴 수 있다. 이는 물의 수호자가 되라는 세례 때의 부르심을 되새기게 한다.

## 마지막 강복과 파견

+ 두려워하며 길을 헤매던 이들의 목마름을 풀어 주시고자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신 하느님,  
 감각을 잃어버린 삶의 가뭄에서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구원의 샘을 흘러넘치게 하시어  
 이방인과 나그네와 이름 없는 이들에게  
 살아 있는 물이 되시는 하느님,  
 저희를 평화로 지켜주소서.

강물처럼 흐르시는 하느님,  
 의로움의 물줄기로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배를 이끄시고  
 세상의 물길을 바꾸시니  
 저희도 변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아멘.

(출처 : 브라질 성공회)

+ 세례의 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하느님 백성 여러분,  
 성령의 권능 안에서 평화로이 가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 하느님 감사합니다.

회중들은 축복한 물을 집으로 가져가 가정이나 정원 등을 축복할 수 있다.  
 참석자들을 위한 용기를 여분으로 준비해 두면 좋다.

# 창조시기 기념 방법과 상징을 살아가는 길

창조시기는 기념, 회심, 그리고 헌신을 통해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매년 지내는 이 에큐메니컬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공동의 집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도록 초대합니다.

연초부터 창조시기를 염두에 두면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를 더 잘 준비하게 되고, 지역 단체와 모임에도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미 있는 만남, 꾸준한 실천, 깊이 있는 경청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접근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우리의 에큐메니컬 헌신을 더 힘 있게 만들고, 관리자인 우리의 소명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공동체가 창조시기를 어떻게 회복과 사명의 시간으로 기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 그리스도인들과 선의를 지닌 이들이 창조세계를 묵상하고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공간, 특별히 창조시기를 처음 기념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공간 마련하기
- 인류 가족과 더 넓게는 생명 공동체 모두를 위해, 신앙 지도자들의 공적 증언과 더불어 보다 정의롭고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공간 마련하기
- 지역 및 전 세계 에큐메니컬 가족과 친교를 나누며 우리 공동체를 쇄신하는 연대와 일치의 공간 마련하기

## 창조시기를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들

창조시기 시작과 마지막 날인 9월 1일과 10월 4일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을 에큐메니컬한 방식으로 기념하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국제 행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 9월 1일: 세계 각지의 신앙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창조시기 개막 기도회가 중부유럽 서머타임 (CEST)으로 오후 3시에 열립니다(한국시각 오후 10시). 9월 1일은 여러 그리스도교 교파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일부 교파는 '창조 축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 10월 4일: 전 세계 청년들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창조시기 폐막 행사가 CEST 오후 3시에 열립니다. 10월 4일은 많은 그리스도 교파에서 사랑받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입니다.

단체 시청: 세계 어디서든 이 행사에 함께하도록 공동체가 단체 시청을 계획하셔도 좋습니다.

창조시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면 더욱 좋습니다. 모든 날이 행사를 개최하기 좋은 때이니, 9월 1일이나 10월 4일이라는 날짜에 국한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의 아이디어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제와 상징 소개 모임 계획하기

아래 제안들을 참고하시고, 창조시기 웹사이트([Seasonofcreation.org](http://Seasonofcreation.org))도 방문해 보십시오.

에제키엘서 본문 설명을 먼저 시작하고 상징을 소개하십시오. 이어서 열린 대화나 소그룹 토론을 진행해 보십시오. 주제와 상징에 대한 묵상과 더불어, 창조시기 동안 기획하고 싶은 활동을 나누도록 참가자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 활동

2026년 창조시기 행사와 기념에 올해의 상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주요 활동 분야를 제안합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세 단계 변화를 나타냅니다.

- 1.관상
- 2.물에 잠기기
- 3.파견

## 관상-살아있는 물을 받아들이는 영적 묵상

‘살아있는 물에 잠기기’는 쇠신과 탄생의 상징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가, 하느님의 영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서 있을 수 없는 깊은 곳까지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 • 물가에서 묵상하기

강가, 바닷가, 또는 호숫가 순례를 기획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물의 흐름과 그 물에 의지해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귀 기울일 시간을 내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로마 1,20 참조)

여러분의 묵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시편 구절도 있고,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시도 있습니다. 한 편을 소개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는 강물 속에 가만히 앉아, 물이 제 참모습을 일러주도록 내맡겼습니다.  
 단어가 아닌, 조금씩 저를 깎아가는 아주 느린 어루만짐으로요.  
 조약돌은 나면서부터 매끈한 것이 아닙니다.  
 물살에 오래 머물러 있기에 그리됩니다.  
 한때 저는 부드러움이 일종의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압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날카로움이 사랑으로 닳아 없어진 뒤에 남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제게 변화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머물며 계속해서 되어가라고 합니다.

(자료 제공: Tendrils: 공동체와 정의에 대한 생태시(詩)학』, 스파이럴 하우스, 2026)

영적 묵상을 돕기 위해 폐제 노래 “주님, 당신은 살아있는 샘”(이탈리아어)를 추천합니다.

- 강변에서 드리는 기도회 (앞서 제시된 “창조시기 에큐메니컬 기도회” 참조)

## 취약하고 가난한 이들, 기후 위기의 인간 얼굴과 함께 - 물에 잠기는 체험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라는 상징을 다양한 차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거나,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희망의 증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공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으며, 새신 또한 가능하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 • 공동체와 함께 물에 잠기는 체험

2026년 상징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기후 위기로 초래된 환경적, 사회적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깊이 연대하도록 합니다. 이 상징은 취약하고 가난한 공동체, 곧 이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에 함께하고 몰입하는 경험을 풍요롭게 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나환자를 끌어안았듯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상처를 ‘만지는’ 일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다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저마다의 이야기 안에 담긴 고통을 진실하게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무관심을 넘어 회개의 마음과 행동하는 책임감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은 또한 ‘희망의 실재’를 드러내는데, 살아 있는 물이 흐르고 하느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미래의 가능성을 몸소 보여주는 증인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에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 기후 변화 피해 이주민 지원 단체
- 홍수·사막화 등 기후 위기 피해 농민을 만나는 농촌 지역
- 태풍, 가뭄, 산불, 홍수 등 극한 기후 피해 공동체
- 수탈적 개발에 맞서 땅을 지키는 원주민 공동체

이 방문은 관련 공동체를 온전히 존중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나 사회운동의 도움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설명을 듣습니다.
-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 사회 문제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활동을 배웁니다.
- 이러한 상황을 낳은 기후 변화와 환경 착취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고, 여러분 각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합니다.
- 나누어 주신 이야기에 대한 감사와 친밀함의 표시로, 여러분이 방문한 공동체에 상징적인 선물을 전하여, 여러분이 곁에 있고 함께한다는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에 잠기는 체험을 기획하기 어렵다면, 기후 위기 영향을 받은 국가의 이주민과 난민은 물론, 최전선에 놓인 지역민들을 여러분의 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과 그들의 개인적 경험담에 중점을 두고 신앙 지도자들과 청년들이 함께 ‘성령 안의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 • 물이 담긴 그릇

행사 때 물이 담긴 그릇을 마련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그릇 주변에 ‘살아 있는 물’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묵상할 수 있는 이미지나 사물, 예를 들면 과일이나 동물 이미지, 신앙의 은총을 나타내는 상징을 놓아둘 수 있습니다. 이 물그릇을 예식의 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깊은 울림을 주는 ‘눈물의 그릇’ 예절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이 가난한 이들과 지구의 눈물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그 물에 손을 담그도록 초대합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분 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기후 위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한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집이나 주변 환경’에서 물을 조금씩 가져와 그릇에 붓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제1회 ‘창조시기 에큐메니컬 기도회’, 2018년 8월 31일, 아시시. (사진: 마리아 콘수엘로 알바라도)

‘눈물의 그릇’ 아래 길게 자른 푸른 천을 놓아서 희망의 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념행사의 마지막 ‘파견’으로 삼을 수 있다. 혹은 아래 ‘공예작품’ 항목의 살아있는 물 수공예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

### • 가장 취약한 이들과 함께했던 신앙과 정의의 증인들을 기억하고 기리기

창조시기 안내서를 활용하여, 우리 공동의 집과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켜 온 이들을 기리는 기도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신앙의 선조들과 순교자들을 함께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 • 다큐멘터리와 이야기로 감동 맛보기

공동체 방문이 어렵다면, 함께 시청하며 깊은 울림을 얻을 수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 “편지 The Letter” -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에 직면한 세네갈 청년 아루나 칸데의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 “모아나를 위한 태평양의 기도 A Pacific Prayer for Moana” - 윈스턴 할라푸아 명예대주교 (영어로만 제공됨)
- “스포일드 Spoiled”: 해양 석유 시추 문제를 다룬 영상(영어로만 제공됨)

## 파견: 살아 있는 물을 통한 강복

신앙 지도자의 강복으로 여러분의 기념 예식을 마무리하도록 권합니다. 세례대나 다른 상징적 장소의 살아 있는 물을 사용하여, 각자 헌신하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샘이 되도록 참가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살아 흐르는 강물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입힌 상처를 낫게 하시고, 저희에게 사랑과 봉사의 힘을 북돋워 주시며, 정의와 형제애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함께 걷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 공예작품

#### 흐르는 살아 있는 물

모든 연령대, 특히 어린이들에게 미술 재료를 제공하고,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표현하게 하여 만든 작품을 세례대 아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세례대를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살아 있는 물의 샘으로 표현하면서, 주님 은총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을 비롯해 생명이 전해질 수 있는 자리들을 보여줍니다.



## 창조시기 동안 풍성해지는 살아 있는 물의 강

(영감 출처: 캐럴 마플스, [소울마크트러스트\(www.soulmarks.co.uk\)](http://www.soulmarks.co.uk)의 예술가이자 전례기획자)

창조 시기 주일마다, 제대를 이런 방식으로 꾸며보십시오.

### 제1주(창조세계의 눈물):

공예작품 — 제대를 꾸미기 위해 갈색 천과 시든 식물을 준비합니다. 예식 중에는 ‘눈물의 그릇’ 예절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환경 문제를 작은 종이에 적어 그릇에 넣거나, 창조세계의 눈물을 상징하는 물그릇에 손을 담급니다.

### 제2주(희망의 작은 물방울):

공예작품 — 파란 천이나 종이를 띠 모양으로 작게 오려서, 희망의 표지로 갈색 천 위에 올려놓습니다. 또는 우리의 희망을 다른 띠에 적어 기도 리본처럼 매달아 둘 수 있습니다.



### 제3주(물속으로 발을 내딛기):

제대를 단색의 파란 천으로 덮습니다.

공예작품 — 작은 파란 그릇을 여러 개 준비합니다. 종이 반죽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릇의 크기를 하나하나 다르게 하여 우리가 저마다 물속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4주(파견): 제대 위에 물주전자를 여러 개 놓습니다. 투명하거나 파란색 도자기 주전자로 준비하십시오. 긴 파란 천으로 제대를 덮고, 그 천을 신자석 사이의 통로까지 길게 늘어뜨리십시오. 주례자나 독서자는 강론하거나 말씀을 봉독할 때 그 ‘물’ 위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공예작품 — 물주전자나 단지는 종이 반죽이나 점토 반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5주(생물 다양성):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에는 파란 천으로 제대를 덮고, 바닥까지 닿도록 늘어뜨립니다.

공예작품 — 제대의 파란 천에 붙일 물고기와 바다 생물 장식을 준비합니다. 이 ‘강’ 옆에 화분을 놓을 수 있습니다.

## 살아 있는 물을 들고 와서 공동체 정원에 흐르게 하기

작년 창조시기에 ‘평화의 정원’을 정했거나 가꾸기 시작했다면, 올해는 그곳에 살아 있는 물이 흐르게 하여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라는 상징과 연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분수를 설치하거나, 물을 사용하는 특별한 축복 예식을 거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2026년의 상징을 기념하기 위해 에제키엘서 한 구절을 새긴 나무 팻말을 세워두어도 좋습니다.

## 창조시기를 기념하기 위한 추가 아이디어

### • 전례 제안

**참회:** 참회 예식(고백 기도) 중에, 환경 파괴에 대한 탄식과 하느님의 창조에 거슬러 지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이미지나 사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침묵:** 야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다른 피조물들이 부르는 ‘찬미의 노래’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봉헌:** 나뭇가지나 열매 같은 자연 상징물을 빵과 포도주와 함께 제대 앞에 봉헌하여, 전례에 창조세계를 포함시킵니다.

**강론:** 사제나 목회자는 강론 주제로 창조세계 돌봄에 대해 다루어 주시길 권합니다. 독서집에 따른 영어 설교 예시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 보편 지향 기도에 창조세계 돌봄에 대한 지향을 포함합니다.

**자연의 소리:** 영성체 때에 성체성가 대신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연극과 춤:** 청년들이 이 주제에 맞는 연극이나 전례 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레오 14세 교황의 승인을 받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the Mass for the Care of Creation)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야외 활동 진행

산과 강과 나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찬미합니다. 자연 한 가운데서 드리는 경배는 이 계속되는 찬미에 우리가 함께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 • 말씀과 기도 산책

소그룹으로 자연 속을 걸으며 생태 관련 성경 구절을 공부하거나, 창조세계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쳐보십시오.

#### • 야외 예배

여러분의 교회 전통과 날씨에 맞추어, 야외에서 기도회나 성찬례를 가져보십시오.

#### • 창조세계의 길

창세기의 신비와 과학적 성찰을 조화시킨 에큐메니컬 공동 기도

‘창조의 길’(Via Creation)을 바쳐 보세요.

이 기도는 ‘십자가의 길’ 형태를 따라 창조의 신비를 묵상하는 공동 기도입니다.

(‘2023년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신앙 지도자들과 함께한 에큐메니컬 밤샘 기도’를 보십시오)

### • 교육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역 활동 마련하기

교육, 깨달음, 그리고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과 의미 있는 변화를 권장하십시오.

**활동 예시:** 우리 지역 청소하기, 산림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나무 심기, 재활용 운동,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공동체/본당 텃밭 가꾸기, 환경보호 행진 또는 캠페인 조직, 환경 관련 영화 상영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어린이·청(소)년 대상 글쓰기 또는 그림 그리기 대회, 창조세계를 주제로 한 콘서트나 예술공연 기획, 창조세계 보호 관련 성경 공부, 녹지조성 활동을 돌아보는 공동체 산책

## • 어린이·청(소)년 대상 활동

앞서 언급한 ‘창조의 길’ 그림 그리기:

창조세계 돌봄을 주제로 한 금요일 저녁 에큐메니컬 청(소)년 모임 추진  
 환경보호 교육이 포함된 에코캠프 기획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교파에 맞도록 준비된 자료가 포함된 영성  
 자료와 전례 자료를 원하신다면 창조시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전례자료

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 • 창조시기 공식로고



# SEASON OF CREATION

## • 올해의 상징 (한국어로고)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  
 예제 47.9.12

# 살아 있는 물

2026 창조시기

## 경험 공유하기

### 사진과 영상

공동체가 창조세계를 위해 행동하는 순간, 전 세계인의 마음을 북돋워 그들의 기도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순간을 담아보십시오.

### 공유를 위한 안내

- 개인 사진은 공유 전 반드시 동의를 받으십시오.
- 어린이 사진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근접 촬영을 삼가해 주십시오.
- #SeasonOfCreation 해시태그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사진이 [SeasonOfCreation.org](https://SeasonOfCreation.org)에 게시됩니다.

##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공유

- 행사 계획과 행사 진행 사진 또는 이야기를 해시태그 #SeasonOfCreation와 함께 게시하면, 공식 웹사이트에 업로드됩니다.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구 트위터)에서 창조시기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보십시오. 창조시기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 블로그에 여러분 공동체의 창조시기 기념 행사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해시태그 #SeasonOfCreation를 붙여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공유는 우리 공동의 집을 아끼고 돌보는 데에 다른 이들도 마음을 모으도록 도와줍니다. 🌍✨

# 옹호활동

## “물은 생명이다.”

에제키엘의 환시는 하느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두에게 생명과 치유, 회복과 풍요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인간과 자연의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이 메시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저수지와 강, 식수 자원, 습지와 바다,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생명을 돌보는 일이자, 그것에 직간접적으로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회복과 번영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의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주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로 호소합니다.

아래의 제안을 참고하십시오.

### 1. 지역 공동체 옹호활동

시급한 지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과 이웃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보십시오. 수자원 관련 공무원, 과학자,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어민, 농민, 여성 단체, 청년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와 성서 학자, 그리고 복음의 빛 안에서 생태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해 온 본당 교우들도 초대하십시오.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촌 마을, 빈곤 지역, 비공식 정착지뿐 아니라 교도소, 의료시설, 학교, 난민촌 같은 주요 시설에도 식수와 위생시설,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 부족 실태
- 습지, 강, 바다 등 수생태계 보호
- 분쟁 지역에 있는 민간인을 위한 수자원 기반시설 보호
- 지하수 자원의 돌봄, 현명한 사용과 보충
- 포용적 절차와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통한 유역 관리
- 지나치게 비싼 수도요금
- 잦은 물 배급 제한
- 산업, 원유 채굴, 농업, 하수 시설로 인한 수질 오염
- 지속가능하지 않은 모래 채취와 하천변 침식

논의된 문제를 다루는 간단한 청원서나 신문사에 보내는 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창조시기 동안 아래의 대상에 청원서를 보내십시오.

- 국회 또는 정부 관계자
- 수자원 관리 공단
- 지자체 상수도 관련 기관
- 지역 행정 책임자 또는 지역사회 환경 위원회
- 오염 발생 기업

## 2.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물 정의 대화

물 정의를 위한 대화를 마련해 보십시오.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강론, 기도, 미사 후 나눔이 포함된 ‘묵상 주일’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로 과학자, 활동가, 성경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 물 접근의 불평등, 예를 들어 성별, 교육, 노인,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 물과 분쟁, 물과 평화
- 오염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
- 하천과 대수층(지하수 포함)에서의 과도한 취수
-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가뭄과 홍수

이러한 모임은 성명서나 공동 실천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지역 강, 습지, 해양 보호 캠페인

아래의 사항을 옹호하는 운동을 펴십시오.

-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 촉구

다음의 모임을 기획하십시오.

- 교회 주도 생태계 복원 활동
-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9월 19일 해안 정화의 날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창조시기 #SeasonofCreation 디지털 옹호 캠페인

신문과 지역 라디오 방송을 활용하여 다음 활동을 하십시오:

- 오염되었거나 죽어 가는 강, 호수, 습지 강조
- 물 부족 영향권에 있는 공동체 이야기 나눔
- 정부와 공동체의 긍정적 변화 축하
- 시급한 대응 공개적 촉구

성경, 정의, 환경 돌봄을 연결하는 신앙의 관점을 아래의 방법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 주간 교육 게시물이나 팟캐스트
- 농민, 여성, 청년들의 짧은 증언
- 오염의 영향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
- 청원 서명이나 주민 공청회 참석 요청
- 지역 강과 샘 이야기 나눔

이러한 노력은 신앙 공동체의 목소리를 교회 울타리를 넘어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 5. 물 정의에 관한 성경 자료

물 정의를 주제로 성경 공부나 설교 시리즈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세계교회협의회(WCC), [에큐메니칼 물 네트워크 사이트](#)
- 교황청 온전한인간발전촉진부, 2020년 발표한 물에 관한 지침 「생명의 원천인 물」(Aqua fons vitae)과 물 관련 자료, 성명서, 활동 사례
- 아 로샤(A Rocha) 자료 허브

# 창조시기에 관하여

창조시기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교 가족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치합니다. 창조시기 동안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역사

1989년에 동방정교회 디미트리오스 1세 총대주교님께서 9월 1일을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고대 비잔틴 전례 전통에 따르면, 이날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날을 2002년에 세계교회협의회(WCC), 2006년에 유럽그리스도교환경네트워크(ECEN)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 그리스도교 교파에서 현재 9월 1일을 창조세계 축일 또는 그리스도 안의 창조세계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기간을 ‘창조시기’ 혹은 그리스도 안의 창조시기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가 창조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2005년 호주 멜버른에 있는 연합교회(Uniting Church) 선교위원회가 이 시기를 위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2008년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신자들에게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이 시기를 기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 성공회 공동체는 이 시기를 받아들이기 위해 2012년에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도록 초대받습니다.

창조시기는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인 10월 4일에 끝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피조물의 찬가”를 지으셨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태 분야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모든 이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2016년에는 세계 에큐메니컬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 창조시기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창조시기를 기념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세계교회협의회, 루터교 세계연맹, 찬미받으소서 운동, 성공회 환경연대, 로잔/세계 복음주의 연맹 피조물 돌봄 네트워크, 세계 개혁신교회협의회, 유럽 그리스도인 환경네트워크, 행동하는 교회연맹, 아 로샤 인터내셔널, 세계 감리교회협의회 및 크리스천에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큐메니컬 네트워크인 운영위원회로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에서 말씀하신 긴급한 요청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요청은 “우리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대화”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보편적인 연대에 대한 필요”입니다. 이 노력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귀한 지도를 해 주시는 창조시기 자문위원회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창조시기 자문위원회

|                                |                                                                                                                     |
|--------------------------------|---------------------------------------------------------------------------------------------------------------------|
| Rev. Dr. Dave Bookless         | A Rocha International                                                                                               |
| Rev. James Baghwan.            | General Secretary, Pacific Council of Churches                                                                      |
| Rev. David J.M.Coleman         | EcoCongregation Scotland                                                                                            |
| Dr. Séverine Deneulin          | Laudato Si' Research Institute, Campion Hall,<br>University of Oxford                                               |
| Tony Franklin Ross             | Ecumenical Relations, World Methodist Council                                                                       |
| Bishop Graham Usher            | Church of England lead Bishop on the Environment<br>Chair, Pentecostal World Fellowship Creation Care<br>Task Force |
| Rev. Prof. Dr. Harold D Hunter | Executive Committee, World Communion of<br>Reformed Churches                                                        |
| Dr. Hefin Jones                | Greek Orthodox Archbishopric of Zimbabwe and<br>Angola                                                              |
| Most Reverend Serafim Kykotis  | Taizé Community                                                                                                     |
| Br. Richard                    | Secretary of the "Pastoral Social Work" Commission,<br>Consilium Conferentiarum Episcoporum Europae                 |
| Fr. Luis Okulik                | Executive Secretary, International Union Superiors<br>General                                                       |
| Sr. Patricia Murray IBVM       | Study Secretary, 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                                                                    |
| Rev. Dr. Peter Pavlovic        | Rector, Lutheran Southern Seminary                                                                                  |
| Rev. Dr. Chad Rimmer           | Creation Justice Ministries                                                                                         |
| Derrick Weston                 |                                                                                                                     |

### 창조시기 운영위원회

|                             |                                                                  |
|-----------------------------|------------------------------------------------------------------|
| Rev. Prof. Antoine Al Ahmar | 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                                  |
| Dr. Louk Andrianos          | World Council of Churches                                        |
| Cecilia Dall'Oglio          | Laudato Si' Movement                                             |
| Rev. Henrik Grape           | World Council of Churches                                        |
| Rev. Dr. Anupama Hial       | Lutheran World Federation                                        |
| Keziah Kariuki              | Act Alliance                                                     |
| Rev. Dr. Tamas Kodacsy      | European Christian Environmental Network                         |
| Rev. Sikawu Makubalo        | Methodist Church of Southern Africa                              |
| Rev. Dr. Rachel Mash        | Anglican Communion Environmental Network                         |
| Rev. Daimon Mkandawire      | Council for World Mission (Reformed)                             |
| Frances Namoumou            | Pacific Conference of Churches                                   |
| Shawna Nemesia Rebello      | Don Bosco Green Alliance                                         |
| John Paul Roberts           | Green Anglicans                                                  |
| Kuki Lalbiakhlui Rokhum     | A Rocha International / Lausanne WEA Creation<br>Care Network    |
| Dr. Tebaldo Vinciguerra     |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br>Development (Holy See) |

## 2026년 창조시기 안내서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 창조시기 안내서는 일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편찬하였으며, 이를 발전시키고 검토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래 언급한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Rev. Dr. Chad Rimmer, Rector of Lutheran Southern Seminary for Liturgies.
- Carol Marples, artist and creative liturgist for the Soul Marks Trust.
- Pauline Mumia & Johanan Celine Valeriano,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for designing and formatting.

우리말 번역 김경은 지혜 수녀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검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번역팀  
편집 가톨릭기후행동 (LaudatoSiMovement Korea)



**SEASON OF  
CREATION**